서울시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및 임·회원들, 좌담

지난 9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및 9명의 임·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좌담이 진행됐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자리를 함께 한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모습.

이날 좌담에서는 한국여성발명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사업과 회원들이 발명하여 사업화한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는 한미영 회장을 비롯하여 안선희 ㈜대호에코텍 대표이사, 윤명희 ㈜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 이영근 수원여자대학 학장, 이희자 ㈜루펜 비아이에프 대표이사, 추숙희 ㈜스마트머니 대표이사, 김명자 홍삼명품관 대표, 김예애 이지밸브 ㈜ 대표이사, 장미희 이지쓰 대표, 조정숙 코코허브 대표 등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발명품인 현미쌀 도정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교통카드, 홍삼 제품, 발로 작동하는 수도장치, 암환자용 가발, 기능성 마스크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오는 2006년 서울여성프라자와 함께 진행될 '여성발명교육'과 서울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창의 발명 교육 교사 양성(가칭)' 등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나눔으로써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피력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외국에서도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상품개선에 앞장서는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생활 속 불편함을 가장 먼저 느끼는 여성들이야말로 발명이나 아이디어 창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가위 차례상에도 우리말 상표 풍성

최근 시장개방 등 국제화 추세로 수입 농수산물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차례상에도 외국 농수산물에 의해 점령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따르면 제수용품 관련 상품에 우리말 상표출원이 2002년에 3백81건, 2003년에 4백17건(전년대비 9.4% 증가), 2004년에 4백77건(전년대비14.3% 증가), 2005년도 상반기에는 2백91건(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수용품 종류별로 보면 곡물류(쌀 등)가 2백84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다음으로 식육류가 1백82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말 출원상표 중 다채롭고 아름다우며 고운 말 상표를 보면 농산물과 그 가공품류(쌀, 야채, 과일 등)에는 맑은 그늘, 볏가리 마을, 뜸부기 노는 마을,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슬찬, 새미골, 좋은 얼굴, 아침이슬 머금은, 눈 내리는 마을 등이 있고, 과자·음료류 등에는 초롱이, 손으로 만드는 사랑, 오글오글, 속삭임, 고드름, 햇살드림, 빛의 물 등이 출원되었으며, 주류·육류·생선류 등에는 지킴이, 옹골찬, 하늘빛은, 살포시, 꽃심이, 해맑은, 햇님 가득, 갯내음 등이 있으며, 제기용품류 등에는 풀꽃내음, 결고은 사람들, 꾸밈과 드림, 한울타리, 상큼이, 혼이 깃든, 아름마루, 다정한 이야기, 꿈틀이 등이 출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 등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과 말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발굴·사용하여 우리 글과 말이 세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계속해서 우리말 상표를 적극 개발하고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황우석 교수 국내외 특허 14건 획득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국내외에서 획득한 특허건수는 모두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5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총 71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 중에서 14건은 특허 등록이 완료됐고 37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며 20건은 출원 후 종결됐다.

총 71건의 특허출원 중 국내에서 30건, 해외에서 34건,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7건이 진행됐다. 특허등록 14건 중 국내에서 등록한 것은 5건, 해외등록은 9건이었다.

황 교수의 특허출원은 모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명의로 이뤄졌으며 해외 특허출원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 유럽 등 9개국에 달했다. 지금까지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으로 모두 9억6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4~5년간 추가로 15억~20억원의 특허출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과학기술부는 예상했다.

특허청, 에너지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청장 김종갑)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최익수)은 양 기관이 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결했다.

김종갑 특허청장(왼쪽)과 최익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서를 건네며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국제 환경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양 기관은 '에너지 기술분야 종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기술분야 특허동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국내·외 특허기술정보를 가공,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에너지 기술정보 서비스 포털 사이트(www. etis.net)'를 통해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특허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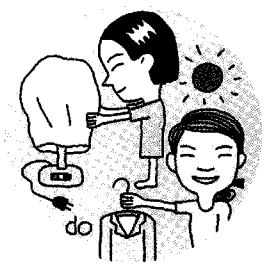
특허청은 에너지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연구 개발성과 평가에 대해 지원하고, 연구원 보유 특허기술의 기업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원 홈페이지에 지재권 상담코너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연구원도 자체 전문기술 강좌를 특허청 심사관에게 개방하고, 특허청 심사관에 대하여 1일 연구원제 등 신기술개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첨단 신기술관련 특허심사시 기술자문도 할 예정이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에너지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 확대와 특허심사의 질적수준 제고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생활 상식

여름용품 제대로 보관하기



올 여름 한 철을 빛나게 했던 여름용품들을 내년을 기약하면서 제대로 보관해야 할 때가 왔다. 패션 소품에서 생활용품까지 내년에도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액세서리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액세서리에도 소금기가 남아있게 된다. 소금기는 변색이나 부식의 지름길이므로 여름에 사용한 액세서리는 보관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깨끗한 천으로 잘 닦아 소금기를 없애고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바싹 건조시켜 보관한다.

샌들

여름내 땀과 습기에 노출된 샌들은 세탁을 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거나 모양이 망가져 다음해에 신을 수 없게 된다. 비닐은 물로 씻고 가죽은 구두약으로 닦은 후 그늘에서 바싹 말린다음 신문지를 뭉쳐 넣어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소다를 안쪽에 뿌려두면 내년 여름까지 말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

선글라스

잦은 바람과 땀으로 염분이 남아있는 선글라스를 그대로 보관하면 코팅이나 도금이 벗겨지고 테에 곰팡이처럼 얼룩이 생기기도 한다. 세척을 할 때는 고운 솔에 주방용 세제를 묻혀 안경테, 안경알 틈, 나사 부분 등을 꼼꼼히 닦고 렌즈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닦는다. 보관할 때는 창호지나 습자지로 싼 후 안경집에 넣어 보관한다.

선풍기

선풍기는 망, 날개, 모터 등을 모두 해체해 비눗물이나 중성세제 용액을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낸다. 휘발성 약품으로 닦아내면 플라스틱의 광택이 없어지므로 주의. 세척한 후에는 깨끗한 물수건으로 비눗기를 없애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 비닐 봉지나 상자에 분해한 상태로 넣어 보관한다. 모터축의 금속 부분은 녹이 슬기 쉬우므로 기름을 약간 발라두면 좋다.

돗자리·발

돗자리나 발은 가벼운 먼지라면 마른 걸레질로 충분하지만 여름 내내 낀 때는 좀더 주의 깊은 세탁이 요구된다. 우성 진공청소기나 빗자루 또는 마른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고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타서 거품을 많이 낸 뒤 부드러운 천에 거품만을 묻혀 닦는다. 다음 식초를 묻혀 거품을 닦으면 찌든 때가 없어지고 윤기가 살아난다. 세탁이 끝나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고 무늬가 있는 겉면을 안쪽으로 말아 비닐이나 종이에 싸서 반드시 뉘어 보관한다.